# 산천초목도 설법하는 無位眞人의 거처

## 백두대간 속으로 〈36〉

### 오대산 〈1〉

◇응복산 오름길에서 바라본 오대산. 하늘금 왼쪽에서부터 두로봉, 상왕봉, 비로봉, 호령봉이 이어진다.

◇북대(미륵암) 어름에서 바라본 오대산 정상 연봉. 고승의 풍모를 닮은 후덕한 형상의 오대산은 요즘같은 가뭄에도 골짜기에 물이 마르지 않을 정도로 수목이 울창하다.

## "佛法 길이 번창할 땅" 삼국유사 기록

## 1만 문수 상주…峰마다 삼매에 든듯

'삼라만상이 다 부처의 몸'이라고 하지만, 범인의 입에 함부로 올릴 말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 밝은 이들의 절창에 텁벙 빠지는 것으로 '법신(法身)'의 광휘를 느낄 수 있다.

산 푸르고 물 흐르고
새 울고 꽃 피네.
이 모두는 줄 없는 거문고 소리
늙은 중은 하염없이 바라보네.

고려 때의 선사, 백운 경한(白雲景閑, 1298~1374) 스님의 노래다.(白雲和尙語錄에 전함.) '소리'를 '본다'? 그 뜻을 머리굴려 알 일이 아닐 성싶다. 백운 스님보다 앞선 한 스님의 노래를 통해 우리 또한 그것을 '보자'.

신기하고 신기하다
불가사의한 무정물의 설법.
귀로 들으려 하면 도무지 알 수 없고
눈으로 들어야 참으로 안다.

동산 양개(洞山良价, 당나라, 807~869) 스님이 운암 담성(雲巖曇晟, 782~842) 스님으로부터 산천초목도 설법을 한다는 말씀을 듣고 문득 깨친 다음 그 심회를 노래한 시다.(傳燈錄15 洞山良价章에 전함.)

사실 이런 종류의 시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음만 못하다. 궁극에 도달한 말이 대부분 그렇듯이, 이해되는 게 아니라 그냥 전해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오대산으로 간다. 눈으로, 무정설법을 들으러.

거기, 월정사나 상원사가 없다 하더라도 오대산은 불교의 성산이다. 비로봉 아래 적멸보궁과 중대(사자암)를 중심으로 동대(관음암)·서대(수정암)·남대(지장암)·북대(미륵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어디 한 군데도 모난 데가 없는 비로봉(1563m)·호령봉(1560m)·상왕봉(1493m)·두로봉(1422m)·동대산(1434m)은 전체의 앉음새가 한 송이 연꽃과 같고, 각각의 모습은 삼매에 든 고승의 풍모를 지니고 있으니, 그 형상만으로도 오대산은 선불장(選佛場)인 것이다.

오대산은 높되 찌를 듯 솟아오른 산이 아니다. 비슷한 높이의 봉우리들이 어깨를 맞대고 있기 때문에 수직적 상승감도 느껴지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높낮이라는 상대적 우열을 우스운 일로 만들어 버림으로써 '무위진인(無位眞人)'의 거처가 된다.

오대산이 부처의 땅으로 인식된 때는 신라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삼국유사〉 탑상편을 보면, 이 산을 문수보살이 머무는 곳이라 한 것은 자장법사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면서 그 내력을 소상히 적고 있다. 줄여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자장법사는 신라 선덕여왕 때인 당나라 태종 정관 10년 병신(636)에 문수보살의 진신을 보려고 중국의 오대산으로 갔다. 처음에 문수보살의 석상 앞에서 이레 동안 기도를 하니 꿈에 부처님이 나타나서 네 구절의 게송을 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범어로 된 것이어서 그 뜻을 전혀 알 길이 없어 수심에 잠겨 있는데, 한 승려가 나타나서 번역을 해주었다. 그런 다음 가사 한 벌과 부처님의 바루와 머리뼈 한 조각을 주면서 "그대 나라의 동북방 명주(지금의 강릉) 경계에 오대산이 있는데 1만의 문수보살이 언제나 그곳에 머물고 있으니 가서 뵈십시오." 하고는 홀연히 사라졌다. 다시 자장 스님은 용의 청을 받아들여 이레 동안 공양을 하자 용이 나타나 '어제 게송을 전하던 노승이 바로 진짜 문수보살입니다." 하고 말했다.

이것 말고도 삼국유사에는 오대산과 문수보살에 관한 기록이 여럿이다. 그만큼 불연이 깊다는 말이겠다. 특히 일연 스님은 지관(地官)의 말을 빌려 '나라 안의 명산 중에서도 이곳이 가장 좋은 땅이므로 이곳은 불법(佛法)이 길이 번창할 곳이다…"고 적고 있다. 또한 삼국유사에는 오대산을 언급하면서 "이 산은 곧 백두산의 큰 줄기…"라는 말을 몇 차례나 반복하고 있다. 고려시대부터 이미 이 땅의 으뜸줄기인 백두대간의 실체를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 주는 좋은 예라 하겠다.

백두대간 상의 오대산은 노인봉(1338.1m)과 동대산(1433.5m) 사이,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과 평창군 도암면을 넘나드는 백두대간의 고갯마루인 진고개(960m)에서 시작된다.

진고개에서 동대산 정상까지는 한번의 내리막도 없이 계속 키를 높인다. 그렇지만 코방아를 찧을 정도로 가파르지는 않다.

동대산에서 두로봉으로 이어지는 숲길은 때묻지 않은 숲의 원시적 생명력으로 충만하다. 훤칠한 참나무 숲 아래로 다양한 식물들은 초록 비단을 펼쳐놓은 듯하고, 능선이든 골짜기든 푸른 기운이 폭포처럼 쏟아져 내린다. '그린 샤워'라는 말이 절로 떠오르는, 참으로 무성한 숲길이다. 오대산 자체가 흙산인데다 다른 명산에 비해 탐방객들의 발걸음이 산보다는 월정사나 상원사, 중대, 적멸보궁 쪽으로 집중되는 때문에 비교적 훼손이 적은 결과가 아닌가 싶다. 두로봉을 오르면서는 오대산 연봉의 동쪽 사면을 한눈에 품을 수 있는 즐거움도 맛볼 수 있다.

두로봉서부터 백두대간은 오대산을 벗어난다. 하지만 오대산은 두로봉이라는 연결고리만으로도 온전히 백두대간의 산일 뿐 아니라 대간의 품새를 한결 넓혀 놓는다. 한편 두로봉에서 서남쪽으로 상왕봉, 비로봉, 호령봉으로 이어지는 오대산 줄기는 계방산과 태기산을 일으켜세우고 양평의 용문산까지 이어지면서 남한강과 북한강의 물줄기를 나눈다.

두로봉에서 곧장 북진하는 백두대간은 만월봉(1280.9m) 전에서 봉우리(1210.1m) 하나를 치켜올리고는 서북쪽으로 허리를 틀어 응복산(1359.6m)과 약수산(1306.2m)으로 이어진다.

뺏뺏이 풀먹인 두루마기를 차려입은 선비풍의 응복산에서 남동쪽을 바라보는 눈맛도 근사하다. 오대산은 물론 동대산과 황병산까지도 눈높이로 걸린다. 또한 이 일대에서는 산나물꾼이나 심마니들의 흔적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 산삼이 많이 나는 곳으로 이름이 높은 곳이라 한다.

약수산에서 구룡령(1013m)까지는 30분 남짓 가파른 내리막 길을 구르듯 걸어야 한다. 최근 구룡령에는 도로 위로 생태 이동통로가 생겼다. 하지만 흙으로 살짝 덮어 나무 몇 그루 심어 놓은 콘크리트 덩어리 위로 어떤 동물이 지나갈지 자못 의심스럽다. 말이 좋아 산림문화회관이지 휴게소와 다름없는 시설물이 생태계의 근본적인 걸림돌임을 왜 모를까? 2보 후퇴의 책임을 면하기 위한 1보 전진. 이런 것을 가지고도 진전된 생태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글=음제학 기자
사진=손재식(사진작가)

매일 아침 나무아미타불을 칭명합시다. 한국불교의 전통(傳統)을 이어, 정토세계(淨土世界)를 열어 갑시다.

제6차 전국 염불만일회 2001년도

설악산 백담사 여름 성지대회 공고

— 매일 나무아미타불을 부릅시다 —

〈설악산 백담사〉

전국 염불만일회에서는 2000년부터 염불 10대성지를 찾아 작년에 전남 대원사 순례하였고 2001년도는 아래와 같이 강원도 설악산 백담사에서 여름 성지대회를 마련합니다. 마지막 날은 건봉사 등공대 참배합니다. 전국에 계신 염불만일회 회원과 불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 일 시 : 2001년 8월 6일 ~ 8일 (2박 3일)
◇ 장 소 : 강원도 설악산 백담사
◇ 내 용 : 염불정진의 본행사 및 건봉사 등공대 성지순례
◇ 신청대상 : 개인, 사찰, 단체, 가족단위
◇ 참 가 비 : 35,000원(염불조끼, 교재 및 식사제공)
◇ 신청방법 : 전화신청 후 은행계좌에 입금
◇ 교 통 편 : 개인별 설악산 백담사 오후2시 도착

서울 · 경기지역 출발 안내

○ 출발장소 : 서울 조계사 앞
○ 출발시간 : 2001년 8월 6일(월) 오전 7시
○ 교통편 : 관광버스 (단, 동참자는 참가비 · 교통비 포함 60,000원을 미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2000년 건봉사 성지대회

전국 염불만일회 회원 모집
▶ 회원자격 : 염불수행을 원하는 모든 분
▶ 회원대상 : 사찰, 단체, 개인별로 가입
▶ 회원회비 : 가입비 2만원(매년회비 1만원)
▶ 가입방법 : 전화 및 우편(사무국 : 02)732-1215~6)

회원이 되시면
▶ 아미타불의 수행방법을 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염불만일회 소식을 가정에서 통신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염불일일기도 수첩 보내드림)
▶ 전국 대도시별로 회원 관리 혜택이 주어집니다.
▶ 평생동안 염불만일회 회원이 됩니다.
▶ 법보신문에 매주 고유번호와 성명이 게재됩니다.

회원가입 은행 입금계좌 (예금주 : 염불만일회)
국민은행:023-21-0667-309 조흥은행:390-04-249351
농 협:053-02-128104 우 체 국:010041-0384727
외 환:173-18-10454-9

全國念佛萬日會
110-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0
☎ (02)732-1215~6 / FAX (02)732-1207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